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275호 (2015-07) 발행일 : 2015. 03. 09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저출산 시대의 가사 노동 및 자녀 돌봄 시간 변화와 시사점*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된 1999~2009년 기간 동안 나타난 가사 노동 시간과 자녀 돌봄 시간의 연도별 변화와 원인을 분석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였음

남성은 “음식 준비 및 정리”와 자녀의 “신체적 돌보기”가 증가하고 여성은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체가 가능한 가사 활동 시간이 감소하는 등 성 역할 변화가 감지되었으나 부모 역할을 대체하기 어려운 자녀 돌봄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성 역할이 크게 작용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사 노동과 자녀 돌봄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문화와 관습의 변화가 요청되고 있으며 정부는 인식 개선 사업 이외에도 안정적인 근로 환경 제공 및 공교육 강화 등 거시적인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신윤정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

1. 서론

- 국내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 노력으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한 이래 정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은 보편적으로 확대되었으나 2013년 국내 출산율은 1.19명의 초저출산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 돌봄과 가사 노동에서 강한 성역할 고정 관념이 존재하고 있으며 취업 부모들이 일과 가정 생활을 양립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어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의 양육 지원 정책은 부모들이 자녀 돌봄 노동을 덜 부담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가사 노동과 돌봄 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남녀 간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신윤정 · 기재량 · 우석진 · 윤자영(2014) “저출산 정책 확대에 따른 자녀 양육 행태 변화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 본 고에서는 1999~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동 기간 동안 부모들의 가사 및 자녀 돌봄 시간의 변화를 분석하였음
 - 분석 대상은 미취학 혹은 초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20~59세의 기혼 성인 남녀이며 종속 변수는 통계청의 정의에 따른 “가정관리시간” 과 “자녀돌봄시간” 으로 하였음¹⁾
 - 기술 분석에서는 세부적으로 가사 노동 시간과 자녀 돌봄 시간의 연도별 변화를 성별, 연령별, 세부 활동별, 시간량 분위별로 비교하였음
 - 심층 분석에서는 2004~2009년 기간 동안 가사 노동 시간과 자녀 돌봄 시간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을 Oaxaca-Blinder 모형, Juhn-Murphy-Pierce(JMP) 모형, 무조건분위회귀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
 - Oaxaca-Blinder 모형을 이용하여 동 기간 동안 나타난 가사 노동 시간과 자녀 돌봄 시간의 변화를 구조적인 요인과 비구조적인 요인으로 분해
 - JMP와 무조건분위회귀 모형을 통해서는 가사 노동 시간과 자녀 돌봄 시간의 연도별 변화를 시간 사용량 분위별로 구분하여 분석
 - 시간 사용량 수준별로 어떤 집단이 주도적으로 평균적인 시간 변화를 이끌었는가 파악하고, 시간 사용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별로 구분하여 시간 사용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을 구조적인 요인과 비구조적인 요인으로 분해

〈 1999~2009년 기간 동안 저출산 정책의 주요 변화〉

-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 (2006~2010년)
 - 저출산 분야 예산 증가: 2조 1,444억원('06) → 4조 3,300억원('09)
- ◆ 영유아 (0~4세)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확대
 - 1999~2005년: 법정 저소득층
 - 2006~2007년: 법정 저소득층 및 최저 생계비 120% 이하
 - 2009년: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
- ◆ 가정 양육 수당 도입 (2009년 7월)
 - 만 0~1세 차상위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20% 이하) 월 10만원
- ◆ 육아 휴직 제도의 확대
 -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증액 (2007년 4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2008년 6월)

2. 자녀 양육 부모의 가사 및 돌봄 시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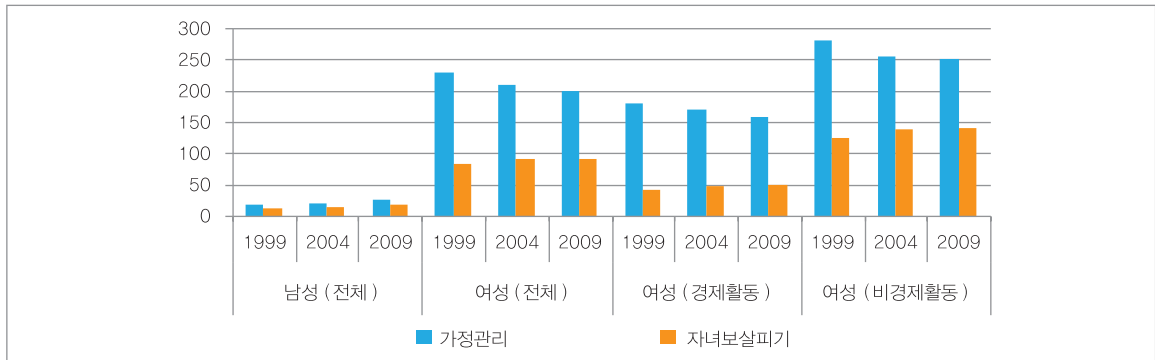
■ 연도별 가사 노동 및 자녀 돌봄 시간 변화

1) 가사 노동과 관련된 행동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는 “가정 관리 시간” 으로 정의하였는 바, 본 고에서는 “가정 관리 시간”과 “가사 노동 시간”을 혼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 1999~2009년 기간 동안 남성의 가사 노동 시간과 자녀 돌봄 시간은 모두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남성의 전체 시간 중 가사 및 양육에 사용하는 시간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들의 가사 노동 시간은 감소되었지만 자녀 돌봄 시간은 증가하였으며 하루 중 상당 부분의 시간을 가사와 양육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사 노동 시간의 감소와 자녀 돌봄 시간의 증가는 경제활동여성 보다 비 경제활동 여성에게서 더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과거 10년 기간 동안 가사 노동에 있어서는 여성의 역할에 변화가 일어났으나 자녀 돌봄 역할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

[그림 1] 국내 성인 남녀의 가정 관리 및 자녀 보살피기 시간 (1999~2009년)

(단위: 하루 평균 시간(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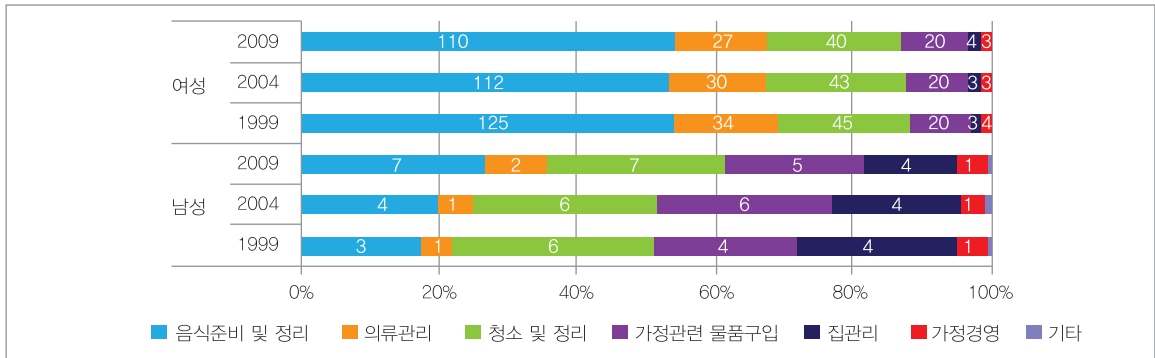
주: 분석 대상은 20~59세 “미취학 자녀” 혹은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남녀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

■ 세부 활동 영역별 비교

- 전반적인 가사 노동 시간이나 자녀 보살피기 시간에서는 현격한 양성 격차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세부 활동 측면에서 엄격한 성역할 구분의 약화가 감지되고 있음
 - 성역할 규범의 약화 경향은 외부 서비스나 인력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여성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가정 관리 영역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 부모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자녀 돌봄에 있어서는 여전히 여성과 남성의 전통적인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
- 남성의 경우 1999년에는 가정 관리 활동 중 “청소 및 정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았으나, 2009년에는 “음식 준비 및 정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 자녀 보살피기에 있어서도 1999년에는 “공부 봐주기 (놀이주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9년에는 “신체적 돌보기”에 대한 시간 비중이 증가
- 여성의 경우 가정 관리 행동 중 외부 서비스 및 인력을 통해 대체가 용이해진 “음식 준비 및 정리”, “의류 관리”, “청소 및 정리” 순서로 큰 감소
 - 자녀 보살피기 행동에 있어서 여성의 시간 증가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간주되는 “신체적 돌보기”에서 상대적으로 큰 증가가 나타났음

[그림 2] 국내 성인 남녀의 가정 관리 시간 세부 활동별 비교 분석 (1999~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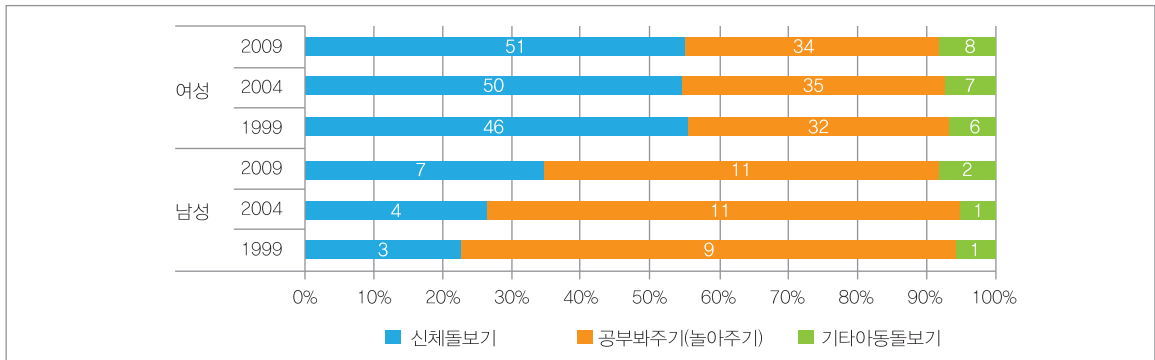
(단위: 하루 평균 시간(분))



주: 분석 대상은 20~59세 "미취학 자녀" 혹은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남녀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

[그림 3] 국내 성인 남녀의 자녀 돌봄 시간 세부 활동별 비교 분석 (1999~2009년)

(단위: 하루 평균 시간(분))



주: 분석 대상은 20~59세 "미취학 자녀" 혹은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남녀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

■ 연도별 변화의 시간량 분위별 비교

○ 1999~2009년 동안 가사 노동과 자녀 돌봄 시간 변화는 시간 사용량이 적은 그룹 보다는 시간 사용량이 많은 그룹에서 현저하게 나타난 것으로 관찰

- 남성의 경우 시간 사용량이 낮은 하위 50% 그룹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시간 사용량이 높은 상위 25%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났음
- 여성들의 가사 노동 시간은 시간량이 큰 집단일수록 감소 크기가 컸으며 자녀 보살피기 시간은 시간량이 큰 집단에게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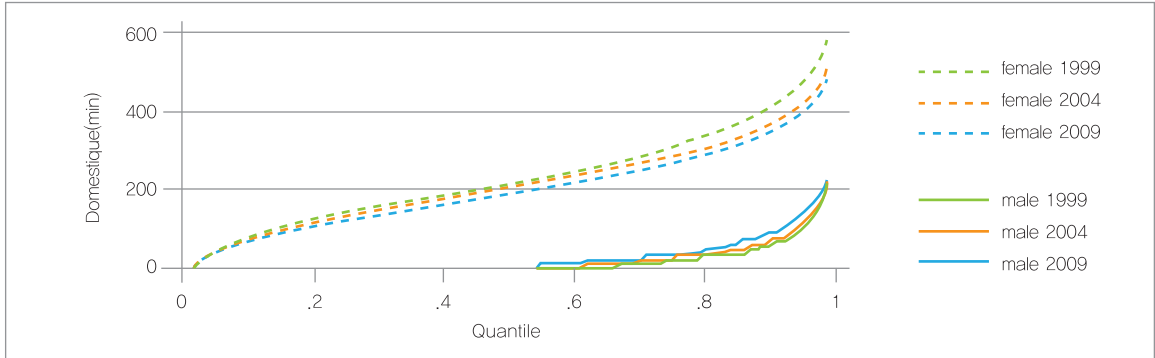
○ 그래프 분석 결과,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은 연도별로 그래프가 우하향하였으며 그래프간의 격차는 시간량 분위가 높은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

- 이는 전반적으로 모든 분위에서 가사 노동 시간이 감소하였으며 그 감소 크기는 가사 노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룹에서 컸다는 사실을 반영
- 남성의 경우 반대로 그래프가 좌상향으로 변화하고 그래프간 격차는 시간량이 높은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남성의 가사 노동 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크기는 가정관리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컸다는 것을 말함

- 반면에, 자녀 돌봄 시간의 각 연도별 그래프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동 기간 동안 돌봄 시간이 시간량 분포별로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시사해 주고 있음

[그림 4] 국내 성인 남녀의 가정 관리 시간 분위별 비교 분석 (1999~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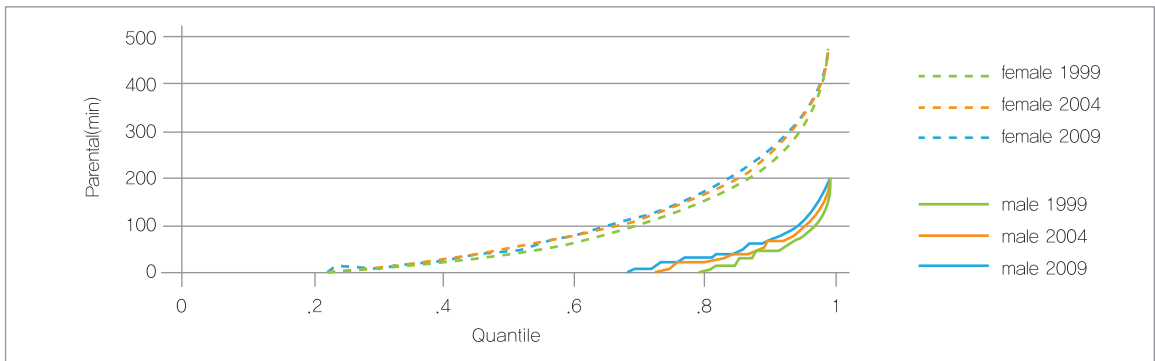
(단위: 하루 평균 시간(분))



주: 분석 대상은 20~59세 “미취학 자녀” 혹은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남녀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

[그림 5] 국내 성인 남녀의 자녀 돌봄 시간 분위별 비교 분석 (1999~2009년)

(단위: 하루 평균 시간(분))



주: 분석 대상은 20~59세 “미취학 자녀” 혹은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남녀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

3. 연도별 변화 요인의 분해 분석 결과

- Oaxaca-Blinder 분해 방법론을 적용하여 2004~2009년 기간 동안 나타난 가사 노동과 돌봄 노동의 참여율, 참여한 사람들의 시간량, 전체 사람들의 시간량의 변화를 구조적인 요인과 비구조적인 요인으로 분해²⁾
 - 남성들은 세가지 종속 변수에서 모두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인구학적 특성 등 구조적인 요인이 아닌 관습이나 인식과 같은 “비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유도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여성들의 경우 참여율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참여한 사람들의 시간량과 전체 여성들의 시간량에서 차이가 발견되었음
 - 가사 노동 시간의 감소는 비구조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자녀 돌봄 시간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비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증가된 바가 컸음

2) 본 연구에서 구조적인 요인은 회귀 모형에 독립 변수로 포함된 경제 활동 여부, 직업, 근로 시간, 소득 수준, 교육 수준, 혼인 관계, 자녀 유무, 연령, 거주 지역 등이며, 비구조적인 요인은 독립 변수 외에 시간량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는 인식, 문화, 관념, 태도 등이다.

〈표 1〉 Oaxaca-Blinder 분해 분석 결과: 가정 관리 시간과 자녀 돌봄 시간(2004~2009)

	가정 관리 시간						자녀 돌봄 시간					
	모형 1: 참가율		모형 2: log(시간량)		모형 3: 시간량		모형 1: 참가율		모형 2: log(시간량)		모형 3: 시간량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04년	0.989*** [0.00100]	0.392*** [0.00501]	5.200*** [0.00642]	3.610*** [0.0149]	212.6*** [1.110]	22.07*** [0.476]	0.765*** [0.00416]	0.268*** [0.00455]	4.199*** [0.0124]	3.701*** [0.0165]	86.35*** [1.066]	15.18*** [0.374]
2009년	0.989*** [0.00129]	0.485*** [0.00647]	5.159*** [0.00842]	3.704*** [0.0171]	205.3*** [1.373]	29.90*** [0.686]	0.760*** [0.00535]	0.332*** [0.00610]	4.273*** [0.0158]	3.779*** [0.0199]	90.55*** [1.381]	21.20*** [0.592]
차이	-8.85E-05 [0.00163]	0.0931*** [0.00818]	-0.0412*** [0.0106]	0.0940*** [0.0227]	-7.296*** [1.766]	7.836*** [0.835]	-0.00478 [0.00677]	0.0648*** [0.00760]	0.0736*** [0.0201]	0.0778*** [0.0258]	4.205** [1.745]	6.025*** [0.700]
구조적 요인	-0.00119 [0.000828]	-0.0057 [0.00474]	-0.0257*** [0.00655]	0.00398 [0.0144]	-4.169*** [1.090]	-0.152 [0.527]	-0.0117*** [0.00409]	-0.00909* [0.00509]	-0.0561*** [0.0152]	0.0182 [0.0175]	-5.046*** [1.339]	0.0945 [0.456]
비구조적 요인	0.0011 [0.00179]	0.0988*** [0.00925]	-0.0155 [0.0102]	0.0900*** [0.0258]	-3.127* [1.702]	7.988*** [0.905]	0.00691 [0.00656]	0.0739*** [0.00766]	0.130*** [0.0160]	0.0596** [0.0280]	9.251*** [1.344]	5.930*** [0.683]
표본수	16,787	15,463	16,609	6,618	16,787	15,463	16,787	15,463	12,811	4,526	16,787	15,463

주: 1) 각 모형의 종속 변수는 다음과 같다: 모형 1에서 참가한 사람은 1,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0, 모형 2는 참여한 사람들의 시간량, 모형 3은 전체 표본의 시간량
 2) []은 표본오차, *** p<0.01, ** p<0.05, * p<0.1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 2009

■ Juhn-Murphy-Pierce(JMP) 분석을 통해서도 평균적인 시간의 증가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용한 집단에 의해 주도된 것인가, 그리고 시간량의 연도별 변화를 설명하는데 구조적인 요인과 비구조적인 요인의 차이가 시간 사용량 분포별로 얼마나 있는가를 파악하였음

○ 남성들의 평균적인 시간 증가는 시간 사용량이 높은 상위 25% 이상을 차지하는 집단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는 구조적인 요인 보다는 비구조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에 따른 것으로 나타남

○ 여성들의 경우 가사 노동 시간 감소는 전체 분위에서 어느 정도 고르게 나타난 반면에, 자녀 돌봄 시간은 시간량 분포의 상위 50% 이상을 차지하는 집단에서 증가가 나타남

- 전반적으로 볼 때 가사 노동 시간의 감소는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주도된 바가 컸으며, 돌봄 시간의 증가는 구조적인 요인과 비구조적인 요인의 상호 작용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시간 사용량이 높은 집단일수록 구조적인 요인보다는 구조적인 요인과 비구조적인 요인의 상호 작용에 의해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음

■ 무조건 분위회귀 방법론을 통해서 구조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독립 변수가 시간 변화에 미친 영향력을 파악하고 동일한 연구 방법론을 적용한 프랑스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음³⁾

○ 한국에서 가사 노동 시간은 여성의 경우 감소했지만 남성의 경우 증가하여 모든 분위에서 남녀의 가사 노동 시간이 감소한 프랑스와 차이를 보였음

- 특히 프랑스에서는 비구조적인 요인이 남성의 가사 노동을 감소시킨 반면 한국 남성의 경우 비구조적인 요인은 가사 노동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발견됨

3) Champagne, C., A. Paihé, and A. Solaz.(2014). "25 ans de participation des hommes et des femmes au travail domestique: quel facteurs d'évolution?" Documents de Travail 203, Insite national d'études démographiq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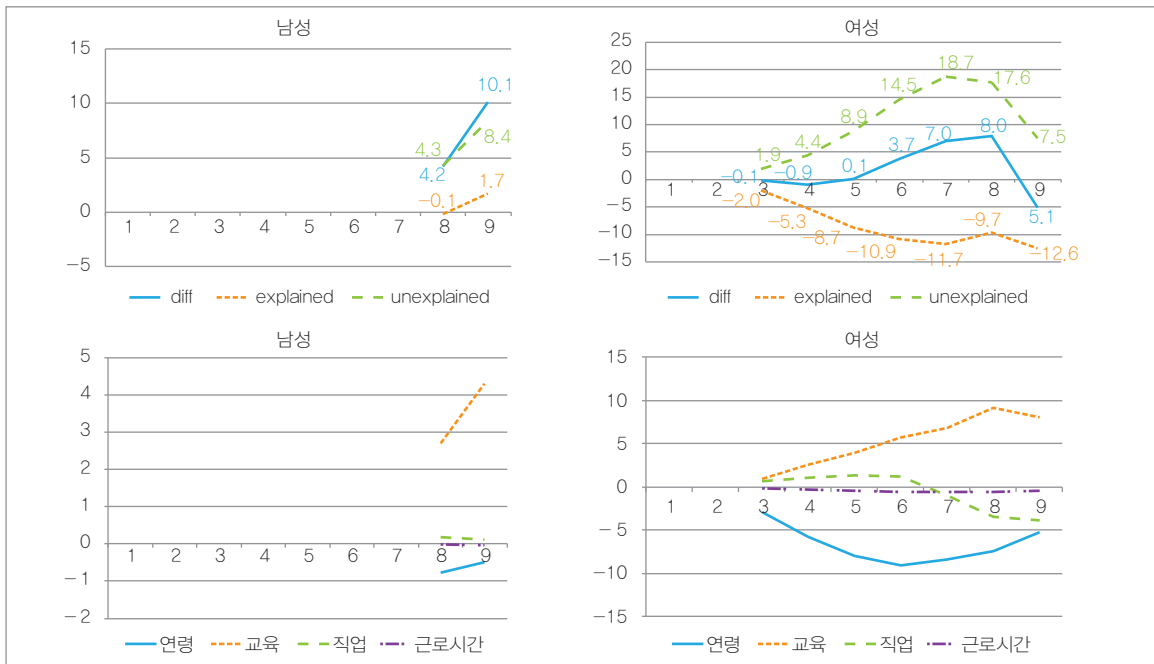
[그림 6] 가정 관리 활동 시간 변화의 시간 사용 분포별 요인 분해 분석 결과(2004-2009)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 2009

주: 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남성 중 가정 관리 시간이 높은 9분위에서 2004~2009년 기간 동안 가정 관리 시간이 하루 평균 17.6분이 증가하였는데 동 증가 중 3.9분은 설명될 수 있는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증가한 것이며 나머지 13.7분은 설명될 수 없는 비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증가한 것이다. 7분위에서 같은 기간 동안 가정 관리 시간이 하루 평균 7.4분이 증가하였는데 동 증가 중 1분은 설명될 수 있는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증가한 것이며 나머지 6.4분은 설명될 수 없는 비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증가한 것이다.

[그림 7] 자녀 돌봄 시간 변화의 시간 사용 분포별 요인 분해 분석 결과(2004-2009)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 2009

주: 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남성 중 자녀 돌봄 시간이 높은 9분위에서 2004~2009년 기간 동안 자녀 돌봄 시간이 하루 평균 10.1분이 증가하였는데 동 증가 중 1.7분은 설명될 수 있는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증가한 것이며 나머지 8.4분은 설명될 수 없는 비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증가한 것이다. 8분위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자녀 돌봄 시간이 하루 평균 4.2분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4.3분 증가한 것이며 비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0.1분 감소된 것이다.

- 돌봄 노동 시간의 경우 남녀 모두 돌봄 노동 시간이 증가했고 특히 중간 혹은 상위 분포에서 증가폭이 더 컸다는 점에서 프랑스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프랑스와 한국 모두에서 비구조적인 요인은 돌봄 시간을 증가시키는 반면, 구조적인 요인은 돌봄 시간을 감소시키고 있었음
- 남성의 돌봄 노동 시간의 증가가 비구조적 요인에 의해 전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은 남성의 의식 변화가 저출산을 타개하는 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
 -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적인 요인 효과는 일과 가정 양립에 영향을 주는 노동 시장 구조 및 관행이 크게 달라진 바가 없음을 시사
- 여성의 돌봄 노동 시간에서 구조적인 요인의 부정적인 영향을 비구조적인 요인의 긍정적인 영향이 상쇄하고 있다는 점은 자녀 돌봄 시간에 대한 심리적 동기가 자녀 양육 행태를 주도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음
 - 구조적인 요인 중에서 부모 연령 상승과 노동 시장 참여는 돌봄 노동 시간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지만 교육 수준의 증가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고 있었음
 - 반면에, 교육 수준의 증가는 가사 노동 시간을 감소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사 노동 시간이 돌봄 노동 시간으로 대체되는데 교육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4. 시사점 및 정책 대안

■ 본 연구 결과가 주는 시사점에 근거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남성들의 자녀 양육 및 가사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 사업과 더불어 안정적인 근로 환경 제공 등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가족을 위하여 생계 활동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밖에 없는 중산층 이하의 남성들의 가사 및 양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노동 시장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정부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한 자녀 돌봄 시간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정서적인 가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비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돌봄 부담의 증가로 귀결되고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자녀 돌봄 시간 증가는 우리 사회에서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투자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투자도 함께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자녀에 대한 투자는 아동이 공공재라는 개념 하에서 공적인 영역의 주도하에 경제적인 측면과 더불어 시간적인 차원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집필자 | 신윤정(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문의 | 044-287-8137

발행인 | 최병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39-007)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5층) | TEL 044)287-8000 | FAX 044)287-8052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